

2022년

대설 국민행동요령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목차

대설 국민행동요령

01

가정에서

키워드 [안전디딤돌] [지역대피장소] [제설함]

02

외출 중

키워드 [겨울철 안전사고] [저체온증]

03

차량에서

키워드 [월동장구] [내비게이션] [고립사고]

04

농·어촌에서

키워드 [붕괴사고] [안전장구] [겨울철 출항]

01

가정에서

키워드 [안전디딤돌] [지역대피장소] [제설함]

1. 대설 위험정보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안전디딤돌 앱]

- 앱 설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긴급재난문자 제공
- 재난뉴스, 기상정보 제공 및 위급 시 긴급신고 기능
- 민방위대피소, 병원, 약국 등 재난 안전 시설물정보 제공

- 대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미리 위험정보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 안전디딤돌 앱, TV, 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기상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설 예·경보를 수신합니다.

2. 대설로 인한 고립에 미리 대비합니다.

[지역대피장소 찾기]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접속
- <재난현황 - 임시주거시설> 클릭
- 검색을 통해 가까운 지역대피장소 인지

- 식수, 비상식량,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연료, 담요 등 비상용품을 사전에 구비 합니다.
- 인근 지역대피장소를 숙지하고, 노약자·어린이 등 재해 약자들에게 알려줍니다.
-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은 경찰서, 관공서 및 이웃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 노후 가옥, 패널식 건물 등은 적설로 인한 붕괴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안전점검과 보강을 합니다.

3.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에 내린 눈을 치웁니다.

[가까운 제설함 찾기]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접속
- <행정안전부_제설함> 검색
- 데이터 활용하여 가까운 제설함 위치 확인

- 폭설 이 후, 내 집·점포 앞 보행로의 눈을 스스로 치워 가족·이웃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 제설함의 삽, 빗자루 등으로 눈을 퍼내고 염화 칼슘, 모래 등을 뿌려 둡니다.
- 제설함 내부 소도구, 제설제가 부족한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요청합니다.

02

외출 중

키워드 [겨울철 안전사고] [저체온증]

1. 강설시, 외출을 자제합니다.

[겨울철 야외 안전사고 통계]

작년 겨울, 산행 및 자전거 안전사고
각각 1,368건, 191건 발생

- 눈이 많이 올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경우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알려 둡니다.
- 24시간 강설량이 5cm 이상인 경우, 개인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 장갑·모자 등을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2. 눈에 젖은 채로, 야외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체온증 통계]

- 최근 5년간, 겨울철 저체온증 환자 5,578명 발생
- 중증 저체온증의 경우, 사망률이 50% 이상

저체온증 증상

- 성인 : 몸 떨림, 피로감, 착란, 어눌한 말투, 기억상실, 졸림
- 유아 : 빨강고 차가운 피부, 축 처짐

저체온증 조치사항

- 의식 소실 시 동행자는 119에 신고합니다.
- 가능한 빨리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등으로 몸을 감쌉니다.
-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음료와 단 음식을 먹게 합니다.
-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 등을 먹여서는 안됩니다.
-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전까지 대화하여 깨어 있게 합니다.

03 차량에서

키워드 [월동장구] [내비게이션] [고립사고]

1. 눈이 오는 경우, 출발 전에 미리 대비합니다.

[차량 출발 전 체크리스트]

- | | | |
|-------------------------------|-----------------------------|--------------------------------|
| <input type="checkbox"/> 스노체인 | <input type="checkbox"/> 삽 | <input type="checkbox"/> 모래주머니 |
| <input type="checkbox"/> 염화칼슘 | <input type="checkbox"/> 연료 | <input type="checkbox"/> 부동액 |
| <input type="checkbox"/> 비상식량 | <input type="checkbox"/> 랜턴 | <input type="checkbox"/> 담요 |

- 전기차의 경우, 출발 전 배터리를 미리 완충하고 이동경로 상 전기 충전소의 위치를 숙지합니다

2. 강설 중, 운전 시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

[겨울철 교통사고 통계]

최근 3년간, 강설 중 교통사고 2,427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망자 43명 발생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등에서 서행하고,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합니다.
- 제설작업 중 몽친 제설제 조각과 얼음 등이 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운행합니다.
- 내비게이션, 도로 전광판의 위험지역 및 도로통제 등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필요시 우회합니다.
- 전기차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출발 전 배터리와 도로 제설 정보를 확인합니다.

3. 차량 고립 시 대처요령을 숙지합니다.

[고립사고 사례]

`21년 폭설로 인해, 동해 고속도로 속초 - 양양 구간에서
차량 700 여 대가 7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 고립사고 발생

- 긴급환자의 구급, 구난, 제설 장비 비상통로로 활용되는 갓길에는 주차하지 않습니다.
- 매시간 약 10분동안 엔진을 켜 히터를 사용하면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 배기 파이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유지하고 환기를 위해 차량의 창문을 약간 엽니다.
- 되도록 차량에서 대기하고, 부득이 벗어날 경우 연락처를 두고 열쇠를 꽂아 둡니다.

04

농·어촌에서

키워드 [붕괴사고] [안전장구] [겨울철 출항]

1.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대비합니다.

[눈의 무게]

습설(습기가 많아 잘 쌓이는 눈) 10cm = 물 1cm

100m²(약 30.25평) 면적, 눈 50cm = 물 5t

-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사의 보온덮개와 차광막 및 과수원의 방조망 등은 미리 걷어냅니다.
- 비닐하우스의 경우, 하우스밴드가 느슨해져 있으면 팽팽하게 당겨 눈이 잘 미끄러져 내려오도록 합니다.
- 비닐하우스 및 양식장의 닻, 부자, 보호망 등의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받침대 등으로 미리 보강합니다.

2. 강설 중, 대응요령 및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

[겨울철 농 · 어촌 피해 통계]

최근 10년간,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붕괴 등

농 · 수산물 등 피해액은 1,586억 원

- 주거용 비닐하우스, 창고 등 가설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은 적설 무게에 취약하므로 눈을 수시로 치웁니다.
- 높은 곳에서 제설하는 경우 안전줄, 안전모, 안전화 등 장비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지붕 제설 시 인원들을 분산하여 배치하고 건물 기둥에서 작업합니다.
- 선박 종사자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기상악화 시 운항을 자제합니다.
- 부득이하게 출항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명장비를 미리 점검합니다.

05 대설 관련 정보

1. 대설 피해의 특징

- 다량의 적설에 의한 하중과 적설의 이동에 의한 압력, 충격에 의해 구조물이 파괴되는 피해 발생
- 적설이 30cm 이상이면 자동차의 소통이 마비되며, 도시에서는 5~10cm의 적설에도 교통체증 발생

2. 대설 특보 기준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24시간 동안의 신적설이 5cm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4시간 동안의 신적설이 20cm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산간의 경우, 30cm)

3. 2022년 겨울철 기상 전망

평균 기온전망	평년(0.1~0.9°C)과 비슷할 확률이 50%입니다.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매우 크겠으며,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강수량 전망	평년(71.2~102.9mm)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입니다.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과 강원영동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라니냐 전망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겨울철 동안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라니냐 : 찬 해수의 융승 현상 때문에 적도 동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저수온 현상